

Andy Freeberg

Sentry
Art Fair
Guardians

앤디 프리버그(Andy Freeberg)는 뉴욕에서 태어나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 살고 있다. 미시간대학을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때 처음 사진을 시작했다. 빌리지 보이스와 롤링스톤 등에서 일했고, 점차 다큐멘터리 사진으로도 영역을 넓혀 포춘, 타임지 등에도 사진을 게재했다. 현재는 순수 사진가로 개인작업에 몰두하며 우리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 Andrea Rosen, Sentry series
• Metro Pictures, Sentry series

예술시장에 투영된 사회현실 아트페어와 미술관의 유쾌한 관찰자, 앤디 프리버그

'Sentry'(보초) 시리즈는 갤러리 입구의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의 머리 부분만을 보여줌으로써 누군가 숨어있는 듯한 유머러스한 광경을 보여준다. 이 시리즈에 대해 설명해 달라.

Sentry 시리즈는 2006년에 시작되었다. 그해 나는 뉴욕을 방문했는데, 길거리의 많은 행인들이 휴대폰에 몰두하며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소 나는 도시의 거리에서 사람들 구경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주변의 변화들을 감지하곤 했다. 그뒤 지난 10~15년간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성장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던 첼시 지역을 찾았다. 조용한 낮시간이었고, 첼시의 갤러리들을 한곳 한곳 방문하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그 커다란 갤러리 안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과 나뿐이었다. 그는 하얗고 커다란 안내데스크 뒤에 머리 부분만을 제외한 채 가려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고, 나는 그 순간을 촬영하였다. 그는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둘러본 다른 갤러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경험을 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되자 사진 시리즈를 만들 생각이 떠올랐다.

뉴욕 첼시 지역의 갤러리를 선택해서 찍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몇 년동안 이 시리즈를 위해 뉴욕을 오가면서 첼시 지역의 거의 모든 갤러리들을 방문하였고, 첼시 주변지역도 가보았다.

모두 1층의 정방형으로 된 크고 하얀 공간의 안내데스크였다. 작년에는 런던, 파리 그리고 서울의 가나아트 등 큰 갤러리 몇 곳을 더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해 찍을 수 있었다. 비슷한 안내데스크들을 눈치 채지 않게 성공적으로 찍는 것은 무척이나 재밌고, 사진들은 언제나 웃음을 자아낸다.

'Art Fair' 시리즈는 아트페어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부스 공간과 바쁜 움직임들을 통해 보여주려는 바는 무엇인가?

Art Fair 시리즈는 Sentry 시리즈 이후의 작업으로, 약 2년 동안 찍은 작품이다. 2009년에 세계적으로 큰 미술시장인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에 갔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품을 파는 딜러들이나 갤러리스트들, 즉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트페어 기간 동안 그들의 갤러리 부스에 나와 있는 것이었다. 이들은 평상시에 갤러리 뒤쪽의 사무실이나 큰 책상 뒤에 있어 잘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트페어에서 이들은 마치 무대 위에 서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부분 부스 안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이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뉴욕 아모리쇼나 아트바젤 스위스 등의 아트페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하고 계속 촬영하였다. 이밖에 아트페어 오픈을 준비하는 부스의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었다. 이 시리즈는 몇개의 다른 종류로 다시 나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미술을 사고파는 국제적 아트페어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이곳에서 작품을 파는 딜러들은 판매하고자 하는 예술작품 앞에서 최신 스타일의 정장차림을 하고, 최신 첨단기기를 사용하며 앉아있다. 이것은 예술세계 뿐만 아니라 좀더 넓게는 오늘날의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작업을 위해 일부러 아트페어를 찾은 것은 아니며, 예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과 세상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 Andrea Rosen, Art Fair series
- Nina Menocal, Art Fair series
- Sean Kelly, Art Fair series



Krinzinger, Art Fair series



••

•••

‘Guardians’ 시리즈는 러시아 미술관에서 작품을 지키는 사람들을 촬영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작업이면서 이전 시리즈인 Sentry와도 연관되어 보인다. Guardians 시리즈에 관해 말해 달라.

2008년에 새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었다. 1980년대에 찍힌 레닌그라드의 여행 흑백사진을 보고, 같은 장소를 찾아가 컬러로 다시 찍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잠시 실 겹 그곳의 히미테지 미술관을 방문하였다. 미술관에서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각 방에는 작품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모두 할머니 포레의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각자 개성 있는 옷을 입고 작품 가까이에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었다. 나는 이들을 찍기 시작했고, 이들이 히미테지 미술관의 지킴이라는 생각에서 Sentry 시리즈를 잇는 새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미술관은 내부 촬영을 금지한다. Guardians 시리즈는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히미테지 미술관은 따로 촬영 티켓을 구입하면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러시아의 다른 미술관에서는 미술관 측에 정식 허락을 구하고 두 시간 정도의 촬영시간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지킴이들에게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평소대로 행동해 달라고 부탁하고 촬영을 하였다. 첫번째 촬영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프린트한 후 몇달 뒤에 열린 휴스턴 포토페스트의 포트폴리오 리뷰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러시아 큐레이터들을 만나 내 작업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러시아의 중요한 미술관 4곳을 언급하면서 그곳에 가서 사진을 더 찍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이후 다시 러시아를 찾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3주 동안 머물며 작업을 하였다. 2009년에 세번째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약 3주간 머물며 이 시리즈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촬영을 하였다. 그때가 바로 포토루시아의 작품집 수상을 하고난 뒤였다.



- Michelangelo's Moses and the Dying Slave, Pushkin Museum, Guardians series
- Kugach's Before the Dance, State Tretyakov Gallery, Guardians series
- Malevich's Self Portrait, Russian State Museum, Guardians series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

구성, 형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색깔이다. 또한 현실에 대한 나의 메시지들이 함께 잘 어우러지기를 바란다. 이는 내 사진을 관람하는 이들에게 각기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최근에는 내 작업이 한참 뒤에 어떻게 보여질지 생각하면서 자세한 세부사항들이 잘 드러나도록 신경 쓰고 있다.

예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작품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 같다.

상업 사진가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왔고, 지금은 순수 사진가로서 내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상업 사진을 오래 해와서인지 예술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예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 미술관이나 컬렉터들이 내 작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기를 바라며, 아트페어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이를 반영한다.

당신의 사진적 철학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

초기에 내 사진에 영향을 준 것은 거리의 사람들과 환경이었다. 게리 위노그랜드와 리 프리들랜더를 무척 좋아해 거리의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오랫동안 흑백사진을 찍었고, 2006년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 컬러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정통적 시각의 다큐멘터리적 접근으로 우리의 현실과 내 이야기를 접목해 보여주고 있다.

전시나 출판 등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아트페어 시리즈가 2014년에 작품집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또 Guardians 시리즈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Contemporary Art in Traditional Museums Festival에 참여한다. 히미테지 미술관의 강이 내려다 보이는 18세기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인데, 작품에 나오는 지킴이들이 와서 벽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MP**

글 | 조안 양정아, 디자인 | 장준일기자

조안 양정아(Joanne Junga Yang)는 Y&G Art 디렉터로 미국, 프랑스, 슬로바키아, 러시아, 포르투갈, 영국 등 세계적 사진행사의 심사위원 및 포트폴리오 리뷰어에 선정,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피인 포토그래피'의 편집위원, 2012 렌즈컬처 인터내셔널 포토 어워드 국제사진상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3 동강국제사진제의 '국제전' 공동 큐레이터도 맡고 있다.



Matisse Still Life, Hermitage Museum, Guardians series